

가출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 상 철*

본 연구는 생애과정이론에 근거하여 가출 이전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가출충동, 비행 개입, 우울 등이 가출 이후에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청소년과 가출 경험 청소년간에 사회적 지지, 가출충동,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고,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 가출 청소년은 가출 경험이 있는 소년원생 130명이었으며, 그리고 학생 청소년은 대구 시내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학생 전체 288명이었다. 연구의 결과 먼저, 가출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매우 낮았고, 가출충동과 우울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정신적 장애를 확인한 결과,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비행 개입정도가 많을수록 우울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 이전의 정신적 장애가 가출 이후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가출 이후 사회적 지지와 비행 개입 정도가 그들의 정신적 장애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생애과정이론과 위험행동 선택모형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I. 문제제기

청소년가출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나 쉽게 수용될 수 없는 청소년의 개인적 부적응 문제이자 사회문제이다. 가출은 청소년기에 국한되어 문제시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청소년가출의 경우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행동으로 인식되는 지위비행의 일종이다. 그리고 청소년가출은 가출 이후 생활의 불안정과 고통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높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며, 또한 사회적 비행을 촉발시키기도 한다(김향초, 1999; 한상철, 1999a).

가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정의 불화나 가족 내 갈등 그리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가출자들은 아동기 동안 거주지의 잦은 변화, 빈곤, 가족갈등,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부모 부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누적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Simon et

* 경산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al., 1996; Unger et al., 1998), 또한 가족을 비롯한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의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Robertson, 1992; Weigel et al., 1998).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가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한 장수환(1993)은 가출의 원인으로 가정문제, 성문제, 학교문제를 들었으며, 특히 가정문제 가운데 가족 성원간의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의 결여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비행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재분석한 전명희 등(1995)의 연구에서도 가족 구조의 결손, 부적절한 양육환경,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문제, 훈육의 부재 및 잘못된 훈육, 위기적 사건의 경험 등을 가정관련 비행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한상철(1999b)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 근거하여 가정관련 요인 및 학교관련 요인의 결합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개인으로 하여금 소외감(alienation)을 가중시키게 되며, 이와 같은 소외감이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가출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울감과 소외감을 가중시키며, 이것은 그들의 가출충동과 실제적 가출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저(Unger, J. B.) 등(1998)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우울감 및 소외감으로부터 가출을 시도하였지만, 가출 이후 생활의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폭행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외로움 등을 겪으면서 점차 더욱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된다. 엘더(Elder, G. H., 1994; 1995)의 생애과정이론은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옛것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억압, 권태감을 불러 일으켰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였지만, 가출 이후 그들은 이전과 유사한 환경 및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우울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이전의 우울이나 소외감을 가출을 통해 해결하기는커녕 가출 이후 더욱 심각한 우울증과 소외감을 겪어면서 개인적인 정서장애와 사회적인 비행행동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출의 실태와 더불어 원인을 분석하여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 가출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정 해체나 학대로부터 탈피할 수밖에 없는 탈출형 또는 생존형 가출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Yoder, Hoyt, & Whitbeck, 1998; Greene & Ringwalt, 1996). 가출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또한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가출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가출은 남자의 경우 폭력이나 마약, 절도 등의 행위로 연결되고 있고, 여자의 경우 매춘, 절도, 마약 등의 비행과 결합되고 있다는 연구보고들(이용교, 1993; Yoder et al., 1998)은 가출 이후 비행행동 개입의 가능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파이텔(Feitel, B.) 등(1992)과 그리노와 링왈트(Greeno, J. M., & Ringwalt, C. L., 1996)는 가출 및 부랑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10-37% 범위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는 일반 청소년의 3-19%와 비교할 때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전한 직업 보장, 학교교육의 보충기회 제공,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 등은 그들의 심리적 우울과 정신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며(한상철, 1999b), 이것은 또한 그들의 비행행동 개입 가능성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연구의 기본 가정으로 삼았다. 먼저,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시도한 것은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더욱 낮고 우울이 더욱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더욱 낮고, 우울과 가출충동이 더욱 높을 것이다. 둘째, 가출 청소년은 가출 이후 생활의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하며 더욱 높은 우울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할수록 더 높은 우울을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의 의미와 원인

청소년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연구노력의 확장에 힘입어 가출의 개념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한국형 사정책연구원(1993)은 가출의 의도성과 목적성에 비중을 두어 가출을 “개인 혹은 다수가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집을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영희(1992)는 “다소는 의식적으로 또

는 충동적으로 가정을 이탈하여 거리로 나오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나철(1992)은 “집과 가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떠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으로써 가출자의 가출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최재식(1982)은 “정신적 갈등의 해결이나 생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족을 떠나 안주의 장소를 구하려는 일종의 도피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출을 일종의 도피행위 또는 퇴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교(1993)는 미국 General Accounting Office(1989)의 정의를 받아들여, 가출 청소년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조작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가출청소년(runaway adolescents)이란 말은 가끔 부랑청소년(homeless)이나 유기된 청소년(thrownaway)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부랑청소년은 보호, 서비스, 감독과 더불어 쉼터가 필요하지만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고, 유기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집을 나가라고 강요받거나 유기되거나 보호자가 그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Finkelhor, Hotaling, & Sedlak, 1990). 이들은 개념상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출청소년이 부랑청소년이나 유기청소년으로 전락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된다(조아미, 1999).

가출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들은 접근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가출자의 가출의도와 가출 및 도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가출은 가출자의 의도나 목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집으로부터 떠밀어내는 요인과 집밖으로 이끌어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한상철, 1998). 다시 말해 가족 구조 결손,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문제, 부적절한 양육방식, 위기적 사건의 경험 등을 포함한 가정관련 요인들과 학업성적 저하, 교우관계 악화, 교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학교관련 요인들이 청소년을 떠밀어내는 요인이라면, 사회의 각종 유해환경과 향락산업 등은 그들을 가출로 유혹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청소년가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청소년 가출은 성인 가출과 달리 규정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의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 즉,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관점 또는 접근을 통해 청소년 가출의 모든 형태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집을 나가는 것’을 가출이라고 하였을 때, 부모의 학대나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로부터 또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실로부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집

을 뛰쳐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또한 ‘집과 가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자기 가정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삶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엇을 해서든 내 꿈을 이루겠다는 야무진 희망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청소년 즉, 그들 나름의 정당한 이유를 갖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라고 하였을 때,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나, 있다고 하여도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의 가출은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18세 미만’이라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기준과 연령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가출의 정의를 가출 형태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개념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청소년가출을 충동형, 탈출형, 쾌락추구형, 생존형 등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유형에 따라 가출을 달리 정의하는 것이다. 예컨대, 충동형 청소년가출이란 청소년들이 감정의 변화나 급격한 흥분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집을 뛰쳐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 역시 모든 청소년 가출을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의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 가출이 문제시되는 것은 단순히 집을 뛰쳐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가출 후 그들의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각종 비행과 유해환경에 쉽게 젖어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에는 정신적 황폐화와 자기 존재감 상실, 자살충동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약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오히려 더 행복해 지고,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부모나 사회 성인들이 청소년가출을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가출이 문제시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가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과 향락산업, 폭력조직 등에 젖어들면서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가출자들은 일차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생활상의 고통과 정신적 외로움, 불안감, 우울 등을 겪게 되며, 이것은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고 자기성장과 건강한 사회적응을 방해한다. 따라서 청소년가출을 청소년의 정신적 장애 및 생활고통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어떤 원인에서든 집을 나와서 현재 생활의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과 삶의 방향이 크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은 첫째, 가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가출 이후 현재 외로움과 불안감,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아니라면 쉽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장애들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정의는 사회적 가치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과 심리상태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오히려 아무런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청소년가출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랑이거나 배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환경에 대해 왜곡된 지각 또는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였거나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거나 개인의 발달적 미성숙이 두드러지게 작용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게 지각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한상철, 1999a).

이 정의는 청소년가출을 사회적 규범에 기초하여 해석하거나 가출자들을 법적으로 규제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가출 이후 청소년의 정신적 장애와 왜곡된 사고체계를 강조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생태학적 관점과 가출유형론적 관점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출자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가출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다. 즉, 정신적 장애와 성격적 결함,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부족 등을 지닌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환경적 자극 및 사회적 지지의 상실에 직면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대처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출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변인간의 관계에 따라 높은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이 자신이 설정한 가출에 대한 주관적 확신준거(confidence criterion)를 초월할 때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가출에 대한 확신준거는 개인의 가출에 대한 지식과 가출전략 그리고 신념체계 및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확신준거가 낮을수록 가출선택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한상철, 1999b).

2. 위험행동 선택모형과 가출

사회인지 심리학자인 셀먼(Selman; R. L.) 등(1992, 1996)은 청소년의 가출을 비롯한 위험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발달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때 위험행동

(risk behavior)은 일상생활의 지루함이나 따분함 즉, 스트레스 인자로부터 탈출하고자 행해지는 행동으로써 신체적 위험행동(싸움, 흡연, 음주, 약물, 무분별한 성접촉 등)과 사회 경제적 위험행동(가출, 학교중퇴, 수업시간 이탈 등)을 포함한다(Levitt, Selman, & Richmond, 1991; 한상철, 1998). 이러한 위험행동은 신기성과 모험성을 수반하는 청소년의 감각적 흥분 추구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rnett, 1998; Zukerman, 1994).

셀먼 등의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위험행동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극단적일 때 즉, 청소년이 기질적 또는 신경 생리적 이상(심한 충동성이나 억제된 기질, 기형적인 뇌구조 등)을 겪고 있거나 극빈한 생활과 심각한 가정불화, 부모의 신체적·성적 학대, 우범지역에의 노출 등을 겪고 있는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가출을 비롯한 위험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간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생물학적·사회 문화적 요인이 극단적이지 않을 때 스트레스 인자들은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의 매개작용에 의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 때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은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과 관리기술 그리고 개인적 신념을 포함한다(Selman, Schultz, & Yeates, 1996; 한상철, 1998).

먼저, 지식은 위험행동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이해수준을 뜻한다. 사실적 지식은 흡연이나 음주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나, 가출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개념적 이해는 가출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험행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험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실적 지식이나 개념적 이해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Lewis & Lewis, 1983).

둘째, 관리기술은 가출을 비롯한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는 대인관계기술을 의미한다. 관리란 개인이 실제 위험행동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과 문제를 공유하고 갈등에 대한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뜻한다. 사람들이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위험행동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인기술이 보다 발달된 사람은 자아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분화하고, 그들 자신의 요구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통합한다. 이것은 조망 수용능력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Unger, Kipke, & Simon, 1998). 부모나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대인관계 기술이 우수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ipke et als., 1995). 셀먼 등(1992)은 위험행동의 관리기술을 대인협상전략(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NS)이라고 하고, 이는 구조적-발달적 측면(탈중심화 능력)과 기능적 측면(조망수용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셋째, 개인적 신념은 개인의 가치, 태도, 동기를 포함한다. 위험행동에 대한 개입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가솔이나 위험행동의 주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고, 지식과 관리기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Levitt & Selman, 1996).

청소년 가솔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향과 사회 문화적 요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의 가솔행동은 심리 사회적 구성성분의 매개작용에 의한 간접적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위험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위험행동에 대한 지식과 대인협상전략 그리고 신념체계의 중재에 의해 위험행동 개입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셀먼 등(1996)의 모형은 매개변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한상철(1999b)은 이와 같은 매개변인이 행동선택의 확신준거(criterion of confidence)를 결정해 준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위험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관리기술 및 신념체계는 그 행동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확신준거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가솔에 대한 사실적·개념적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지원과 대인협상전략이 우수하며, 신념체계와 가치가 건전하게 확립되어 있을 경우 개인은 위험행동 선택의 확신준거를 높게 설정할 것이다. 확신준거가 높다는 것은 이를 초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위험행동의 선택확률을 낮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솔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 가솔에 대한 확신준거가 높기 때문에 충동성이 이를 쉽게 초월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가솔에 대한 지식과 관리기술, 신념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확신준거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솔충동은 쉽게 확신준거를 초월할 수 있게 되며 결국 가솔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개인의 왜곡된 성향을 수정하고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위험행동에 대한 개인의 확신준거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가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비행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적 요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들은 스트레스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야기시킨다.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청소년들은 생활에서의 권태로움과 우울감을 갖게 되며, 이것은 곧 그들의 가출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가출 이후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한 가지로 가출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한상철, 1999a). 청소년기의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은 가출의 한 가지 원인임과 동시에 가출 이후 더 큰 위험행동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출 이후 청소년의 위험행동 개입과정에서도 개인의 위험행동에 대한 지식과 관리기술 및 신념체계는 중요한 중개변인의 구실을 하며, 또한 확신준거 설정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 관련 스트레스(예, 부모의 사망, 이혼 등), 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예,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사, 전학, 직업 이동), 성숙 과정에 따른 스트레스(예, 신체변화에 대한 관심, 자율성과 독립에 대한 갈등, 동료들의 수용, 성욕 문제 등),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예,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 만성적 스트레스(예, 빈곤, 부모 부재 등)를 포함한다(Comerci & MacDonald, 1990). 청소년의 높은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 건강 및 섭식장애, 우울 장애, 자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Adams et als., 1994; Barnet et als., 1996; Compas et als., 1993; et als.).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신경내분비선이나 면역반응을 통해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Ferra et als., 1993; Thoits, 1995), 알콜이나 그밖의 약물 사용과 같이 잠정적으로 해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Wills et als., 1992).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이와 관리기술, 사회적 지지, 개인적 신념 등은 가출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가출 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개입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사회적 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가출을 비롯한 위험행동의 선택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가출 후 우울이나 나쁜 신체적 건강, 알콜이나 약물사용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Unger et als., 1998). 대부분의 가출자들은 학대적 가족이나 무관심한 가족성원으로부터 탈출하였거나, 그들 부모에 의해 거부되고 밀려나고 버려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퇴하였고, 실직 상태에 있으며, 비행

집단에 관여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약물취급과 매춘에 개입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성병, 원하지 않은 임신, 폭력, 기타 문제행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Simon et als., 1996). 가출 청소년 가운데 많은 비율은 아동기 동안 거주지의 잦은 변화, 빈곤, 가족 갈등,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부모의 부재 등과 같은 스트레스 인자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동성애(gay, lesbian, bisexuality)를 자아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Kipke et als., 1995). 이것은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관리기술과 사회적 지지원의 부족이 가출 이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위험행동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의 스트레스 유발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으며, 가출 동안 범죄와 폭력에 개입하면서 일정한 은신처나 음식 또는 돈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Simon et als., 1996). 이러한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건강 악화, 약물사용과 같은 행위에 쉽게 노출된다(Unger et als., 1998). 이 가운데 특히 우울증은 가출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정신적 장애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LA지역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표본집단의 64%가 DSM-III의 임상적 우울 준거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Unger et als., 1997). 이러한 비율은 일반 청소년의 임상적 우울 비율 7%(Peterson et als., 199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우울증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높은 상관을 보여 주고 있음으로써(Yoder et als., 1998)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 주고 있다.

가출 청소년 가운데 신체적 건강의 악화는 38%를 보여 주고 있음으로써 비가출 청소년 2%와 대조적이다. 그리고 알콜 사용 79%, 마리화나 77%, LSD 67%, 코카인 54%, 약물 주사 30% 등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55%가 DSM-III의 알콜 장애 준거를 충족시키고, 60%는 약물장애 준거를 충족시키고 있다(Kipke et als., 199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과 약물사용 및 건강악화가 상호 반복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 반응을 증폭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또한 약물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심한 우울증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울과 건강악화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비행행동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야기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기술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우울과 건강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가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위험행동 및 비행에 대한 지식과 신념체계를 확립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와 비행 개입 정도가 그들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보고자 의도되었다.

III. 연구방법

1. 대 상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해 가출 경험이 있는 소년원생을 표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가출자의 정신건강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학생 청소년을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출 경험이 있는 소년원생은 전체 130명이며, 학생 청소년은 전체 288명이다. 연구대상의 각 집단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 연구대상의 분포

집 단	중	인문고	실업고	소년원생	전 체
남	53	44	42	130	269
여	49	51	49		149
전 체	102	95	91	130	418

가출경험 소년원생 가운데는 중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가 95명(73.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실업고, 인문고, 기타학교의 재학 또는 졸업자가 35명(17.69%)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주 보호자가 부모님이라고 답한 소년원생이 29.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편모(24.62%)와 편부(23.85%)의 순이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 가출 소년원생의 특성

집단	부모	편부	편모	형제	조부모	친척	없다	전체
초등	0	1	0	0	0	0	1	2(1.54)
중	22	27	23	7	5	6	5	95(73.08)
인문고	1	0	1	0	1	0	0	3(2.31)
실업고	13	1	7	0	1	1	0	23(17.69)
기타	2	2	1	0	0	2	0	7(5.38)
전체	38(29.23)	31(23.85)	32(24.62)	7(5.38)	7(5.38)	9(6.92)	6(4.62)	130(100)

2. 도 구

1) 사회적 지지 지각 검사 : 가족이나 또래친구로부터 관심과 애정, 긍정적 평가, 정보제공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는 Unger 등(1998)의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품등 평정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는 Cronbach $\alpha = .76$ 로 나타났다.

2) 가출충동 검사 : 청소년들의 가출 충동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3품등 평정척도로 된 15개 문항의 가출충동검사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Yoder 등(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출 충동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구YMCA(1999c)의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여 구성한 것으로 신뢰도(Cronbach $\alpha = .81$)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우울 검사 :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4품등 평정척도로 된 15개 문항의 우울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Beck(1967)의 우울 검사를 참고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상황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Cronbach $\alpha = .85$ 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검사 이외에 가출경험이 있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비행 개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의 종류를 유목별로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피험자들에게 가출 이후 자신이 개입한 비행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비행유형은 폭력비행(흉기소지, 싸움 등), 성 비행(성폭력, 성희롱 등), 풍속적 비행(음주, 흡연, 불건전오락, 유흥장 출입 등), 퇴행적 비행, 금전적 비행(절도, 도박, 도박, 금품갈취 등)이다. 자신이 폭력과 성적 비행 두 가지에 개입하였다면, 두 가지 비행유형 각각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체크된 빈도

를 합산하여 비행유형별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비행 개입정도로 삼았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집단별로 분류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집단간 평균 차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two-way ANOVA를 적용하였다. 이때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은 전체 점수를 서열화한 후 대상 인원수의 33%를 기준으로 상, 중, 하를 구분한 것이다.

IV. 결 과

1. 각 변인에 대한 가출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간의 차이

사회적 지지, 가출충동, 우울의 각 변인에 대한 가출경험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간의 평균차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 각 변인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 검증

	소년원(A)		중학교(B)		인문고(C)		실업고(D)		F	개별비교 (Scheffe)
	M	SD	M	SD	M	SD	M	SD		
사회적지지	51.74	8.50	55.31	7.73	54.38	7.69	53.31	8.11	4.20**	A·B
가출충동	27.22	6.36	21.64	5.23	22.17	4.92	26.74	6.50	27.07***	A-B/A-C D-B/D-C
우울	35.34	8.09	31.26	8.29	33.61	5.99	36.38	7.18	8.86***	A-B/D-B

*** p< .01 ** p< .001

표 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가출경험 청소년과 중, 인문고, 실업고 집단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개별비교 결과 가출 청소년과 중학생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중학생 집단이 가출 청소년 집단보다 의미있게 높다. 가출 경험이 있는 소년원생 대부분이 중학생이었던 점(74%)을 고려하면, 유사한 연령집단이면서도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 전체의 평균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t=2.84, p<.0049)에서도 확인된다.

가출충동 역시 집단간에 0.1% 수준의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으며, 개별비교 결과 가출 청소년과 중학생, 가출 청소년과 인문고등학생, 실업고 학생과 중학생, 실업고 학생과 인문고 학생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가출충동은 가출 청소년 집단이 가장 높으며, 실업고 학생은 가출 청소년만큼이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생 집단과 인문고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출충동을 보이고 있다. 가출경험 소년원생과 학생 청소년 전체간의 차이검증을 위한 t-test의 결과($t=5.68$, $p<.0001$)는 가출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실업고 학생들의 가출충동이 가출경험이 있는 소년원생 만큼이나 높다는 것이다.

우울 득점 역시 집단간에 1% 수준의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다. 개별비교의 결과 가출 청소년과 중학생, 실업고생과 중학생간에 각각 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우울은 실업고 학생과 가출경험 소년원생에게서 높고,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가출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 전체간의 t-test 검증결과($t=2.45$, $p<.0142$)에서도 가출 청소년의 우울이 학생 청소년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가출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지각과 높은 우울 및 가출충동성 등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가출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분석

먼저, 가출경험이 있는 소년원생의 비행개입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비행개입 정도의 조사는 비행 유형을 유목별로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피험자들에게 가출 이후 자신이 개입한 비행을 모두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표 4는 각 비행유형별로 체크된 빈도를 합산한 것이다.

표 4 : 가출 청소년의 비행유형별 개입 정도

	폭력비행	성비행	풍속적비행	퇴행적비행	금전적비행	개입무	전체
빈도	94	62	103	63	114	4	440
비율	(21.36)	(14.09)	(23.40)	(14.31)	(25.90)	(0.90)	(100)

표 4에 의하면, 가출경험이 있는 소년원생들은 가출 이후 금전적 비행(절도, 도박, 도박, 금품갈취 등)에 가장 많이 개입하였고(25.9%), 다음으로 풍속적 비행

(음주, 흡연, 불건전오락, 유흥장 출입 및 종사 등)과 폭력비행(흉기소지, 싸움 등)에 많이 개입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일차적인 욕구가 의식주 해결이며, 그들의 가출동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권태감, 스트레스, 욕구불만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이 절도나 금품갈취와 같은 금전적 비행으로 이어지고, 가출 이후의 자유로운 생활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풍속적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출경험 소년원생들은 한 사람이 평균 약 3.4회 정도의 비행에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30명의 피험자들이 440회의 비행개입을 보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출경험 소년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과 비행개입 빈도에 따라 우울 특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각 집단별 우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 각 집단별 우울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행\지원	상(n=40)		중(n=49)		하(n=41)		전 체	
	M	SD	M	SD	M	SD	M	SD
1중(n=15)	23.33	1.52	32.80	7.19	41.00	9.98	34.73	10.32
2중(n=13)	36.66	15.69	37.00	2.91	35.20	7.46	36.23	7.94
3중(n=29)	29.63	5.90	36.00	5.20	34.70	5.98	33.13	6.22
4중(n=20)	33.50	5.00	33.90	10.39	32.50	4.92	33.40	7.86
5중(n=47)	34.17	6.57	38.31	5.05	42.72	6.95	37.85	6.80
6중(n= 6)	36.50	4.94	37.50	12.02	40.00	2.82	38.00	6.16
전 체	32.35	7.36	36.30	6.78	37.92	7.75		

표 5에 의하면, 먼저 5가지 유형의 비행에 가담한 소년원생이 전체 130명 가운데 47명(36.15%)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3가지 유형의 경험자가 22.3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 후 비행에 가담하게 되면 특정한 한가지 비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행을 닦치는 데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의 부정적 정체감과 정신적 황폐화 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울 특점의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 우울 특점의 집단간 평균차 검증

변산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사회적지지(A)	2	383.6633	191.8316	3.98	0.0215
비행빈도(B)	5	753.1842	150.6368	3.12	0.0112
A × B	10	648.8918	64.8891	1.35	0.2155
오 차	112	5402.7364	48.2387		
전 체	129	7397.2000			

표 6에 의하면, 가출경험 소년원생의 우울은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상, 중, 하 간에 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비행유형 개입정도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더욱 많은 종류의 비행에 개입할수록 우울 점수가 높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정도와 비행개입 빈도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가출경험 소년원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비행개입 빈도 각각은 그들의 우울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상, 중, 하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 점수에 대한 세 집단간의 개별비교(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 사회적 지지 상, 중, 하 집단간 우울 특점의 개별비교

집 단	중	하
상	-3.956 [*]	-5.577 [*]
중		-1.621

* p < .05

표 7에 의하면, 가출경험 소년원생의 우울 점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상’인 집단과 ‘중’인 집단, ‘상’ 집단과 ‘하’ 집단간에 각각 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부모나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받고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가출과 비행 경험 이후에도 우울이 비교적 낮은 반면에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은 우울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 체계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장애 특히 심리적 우울을 경감시키거나 최소한 우울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출 이전의 심리 상태가 가출 이후에 반복되어 진다는 생애과정이론에 근거하여 가출 이전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가출충동, 비행 개입, 우울 등이 가출 이후에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근거로 하였다. 먼저,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시도한 것은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더욱 낮고 우울이 더욱 높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가출 청소년은 가출 이후 생활의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할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우울을 더욱 높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경험이 있는 소년원생과 학교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간에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가출충동 그리고 우울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즉, 가출 청소년의 경우 학생 청소년들보다 부모나 또래 등으로부터의 유용한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가출충동과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이의 관리기술 및 사회적 지지는 가출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비행개입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Kipke et al., 1995; Peterson et al., 1993; Unger et al., 1997, 1998; Whitbeck et al., 1997; 한상철, 1999a, b)과 거의 전적으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Unger 등(1998)은 가출 청소년의 경우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우울이나 약물사용, 신체건강의 악화 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Selman 등(1992)과 Kipke 등(1993), Unger 등(1998), 한상철(1998)은 부모나 동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대인관계 기술이 우수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낮은 사회적 지지는 가출선택에 중요한 결정인자일 뿐만 아니라 가출 이후 더욱 심각한 우울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이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고, 가출충동과 우울이 더욱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며, 사회적 지지와 우울 등이 그들의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출경험이 있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먼저 그들의 비행개입 정도를 조사한 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과 비행개입 정도가 그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먼저, 가출경험 소년원생들은 금전적 비행과 풍속적 비행 그리고 폭력비행에 많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가출 이후 평균 비행 횟수는 3.4회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5가지 종류 이상의 비행에 개입한 청소년이 36.15%에 이르고 있고, 3가지 유형의 비행 개입자가 2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비행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들의 심각한 정신적 소외감과 우울, 자괴감 등으로 인하여 소위 닥치는 대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전명희 등(1995)의 비행화 과정모형에 비추어 볼 때, 가출이나 중퇴경험, 경찰서 드나들기 등의 사건들이 그들의 존재감과 의미감을 상실하게 함으로서 급기야 심각한 비행 즉, 범죄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출경험 소년원생의 우울은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상, 중, 하간에 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비행개입 정도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유용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가 낮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고, 더욱 많은 종류의 비행에 개입할 수록 우울 점수가 더욱 높다. 그러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과 비행개입 정도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비행개입이 우울에 독립적인 영향을 줄 뿐,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비행 개입의 차별적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lder(1995)의 생애과정이론이 설명하는 가출자들의 비행행동 개입 및 우울의 심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의 새로운 장면 또는 상황에서 옛것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가출 이전에 확대적이거나 비지원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이것이 가출 이후 그대로 반복되면서 비행행동의 증가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출 이전의 사회적 지원 결핍이 가출이후 더욱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심각한 우울감과 자기존중감 저하, 절망감 등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한상철, 1999a). Young 등(1995)은 부모의 적극적 지지를 지각한 청소년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Windle 등(1992)은 가족의 풍부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낮은 우울증상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의미있는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이전부터 사회적 지지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출 이후 사회적 지지의 능가적인 결핍과 박탈감은 심각한 우울과 비행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Yang과 Clum(1996)은 가출 청소년의 비행행동 개입증가는 가출 이전 학대 경험을 통해 내재화된 분노감정이 가출 이후 다른 사람을 향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Whitbeck 등(1997), Whitbeck과 Simon(1993)에 따르면, 가출 이후 거리의 문화는 반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와 소외감, 우울감을 갖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심지어 Yoder 등(1998)은 가출청소년의 강화·확대된 스트레스와 우울은 그들에게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갖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체제가 왜곡되어 있거나 실제로 유용한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 낮은 사회적 지지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 개입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우울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유용한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우울을 정감시키고, 그들의 성장과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준다(Sarason et al., 1994; Weigel et al., 1998). 또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개선시켜 주고 대인문제해결능력과 대인조망수용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인지적 성숙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우울 및 정신적 장애와 비행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울이 가출 이전과 이후에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더 적합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가출 청소년은 가출 경험이 있는 소년원생들이다. 이들의 우울 지수를 가출 경험이 없는 일반 학생 청소년과 비교하였는데, 소년원생의 우울 점수가 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원생 가운데서도 가출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구분하여 이들의 우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향초(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발전방향과 청소년가출에 대한 대책, 서울 구로구 가출청소년쉼터.
- 나동성, 이용교(1993). 가출청소년연구. Albert R. Robert 저.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 대구YMCA(1999a). 입소자 인테이크시트를 통한 가출유형 조사보고서.
- 대구YMCA(1999b). 대구지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 대구YMCA(1999c). 생활환경이 청소년가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보고서.
- 박성수 외(1996). 청소년가출의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행동연구, 제1집, 경산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 이영희(1990).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마련.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용교(1993). 가출.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문제론. 서울: 서원.
-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9, 2, pp. 115-137,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수환(1993). 상담사례분석을 통한 청소년가출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학교 대원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희, 오익수, 김진희(1995). 청소년 비행화과정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3호, pp. 91-113. 청소년대화의광장.
- 조아미(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사회적 역할, 서울구로구 가출청소년 쉼터.
- 최재석(1982). 가족해체: 아동의 가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문제론. 김영모 (편). 서울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한상철(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 3, pp. 45-62, 한국청소년학회.
- 한상철(1999a). 가출청소년의 위험행동과 대처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행동 연구, 4, pp. 113-134, 경산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 한상철(1999b). 소외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화 모형과 정책적 대안.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청소년학회.
- Adams, D. M., Overholser, J. C., & Spirito, A.(199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pp. 43-48.
- Arnett, J.(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pp. 301-320.
- Barnet, B., Joffe, A., Duggan, A. K., Wilson, M. D., & Repke, J. K.(1996).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pregnant and postpartum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0, pp. 64-69.
- Beck, A. T.(1967).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Caspi, A., Bem, D. J., & Elder, G. H.(1989). Continuities and consequences of interactional styles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Personal*, 57, pp. 375-406.
- Comerci, G. D., & MacDonald, D. I.(1990).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1, pp. 127-143.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pp. 331-34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pp. 526-541.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 486-495.
- Elder, G. H.(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Social Psychology Quart.*, 57, pp. 4-15.
- Elder, G. H.(1995). The life course paradigm. In Moen, P., Elder, G. H., & Luscher, K. (eds.), *The Eleve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 Feitel, B., Margetson, N., Chamas, J., & Lipman, C.(1992). Psychosocial background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of homeless and runaway youth. *Hospital Communication and Psychiatry*, 43, pp. 155-159.
- Finkelkor, D., Hotaling, G., & Sedlak, A.(1990).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 Delinquency Prevention. Missing, abducted, runaway and throwaway children in America (pp. 1-9). First Report: Numbers and Characteristics. National Incidence Studies, Executive Summary.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1, pp.

1016-1024.

- Giordano, P. C., & Cerkovich, S. A.(1993). The family and peer relations of black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pp. 277-287.
- Greeno, J. M., & Ringwalt, C. L.(1996). Youth and familial substance use's association with suicide attempt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Substance Use and Misuse*, 31, pp. 1041-1058.
- Heim, E.(1995). Coping-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6, pp. 145-151.
- Homer, L. E.(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 pp. 373-379.
- Kipke, M. D., O'Conner, S., Palmer, R. F., & Unger, J. B.(1995).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tress outreach interventions targeted to street youth*.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Diego, California.
- Levitt, M. S., Selman, R. L. & Richmond, J. B.(1991).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arly adolescents' high risk behavior: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pp. 349-378.
- Levitt, M. Z., & Selman, R. L.(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Lewis, C. E., & Lewis, M. A.(1983). Improving the health of children: Must the children be involved? *Annual Review Public Health*, 4, pp. 259-283.
- Lorenz, E. O., Conger, R. D., Montague, R. B., & Wickrama, K. A.(1993). Economic conditions, spouse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rural husbands and wives. *Rural Sociology*, 58, pp. 247-268.
- Neiger, B. L., & Hopkins, R. W.(1988). Adolescent suicide: Character traits of high-risk teenagers. *Adolescence*, 23, pp. 469-475.
- Procidando, M. E., & Heller, K.(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pp. 1-22.
- Robertson, M. J.(1992). Th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 among homeless people. In R. I. Jahiel(ed.), *Homelessness: A prevention oriented approach*, pp. 57-86,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elman, R. L., Schultz, L. H., & Yeates, K. O.(1996).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ac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pp. 289-329, Hillsdale, NJ: Erlbaum.

- Selman, R. L., Schultz, L. N., Nakkula, M., Barr, D., Watts, C., & Richmond, J.(1992). Friendship and fighting: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study of risk and prevention of viol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pp. 529-558.
- Short, J. L., Roosa, M. W., Sandler, I. N., Ayers, T. S., Gensheimer, L. K., Braver, S. L., & Tein, J. Y.(1995). Evaluation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a self-selected subpopulation of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pp. 223-247.
- Simon, T. R., Kipke, M. D., Ungel, J. B., & Montgomery, S.(1996). *Homeless youth in Hollywood: The lives left behind*.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nnual meeting, New York.
- Thoits, P. A.(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pp. 53-79.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pp. 134-157.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Montgomery, S. B., & Johnson, C. J.(1997). Homeless youths and young adults in Los Angeles: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 pp. 371-394.
- Wan, C. K., Jaccard, J., & Ramey, S. L.(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pp. 502-513.
- Weigel, D. J., Devereux, P., Leigh, G. K., Ballard-Reisch, D.(1998).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pp. 158-177.
- Whitbeck, L. B., Hoyt, D. R., & Ackley, K. A.(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 and later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Adolescent*, 7, pp. 375-392.
- Whitbeck, L. B., Hoyt, D. R., & Huck, S. M.(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pp. 1025-1035.
- Wills, T. A., Vaccaro, D., & McNamara, G.(1992). The role of life events, family support, and competence in adolescent substance use: A test of vulner-

- 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pp. 349-374.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pp. 522-530.
- Yang, B., & Clum, G. A.(1996).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risk for suicid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pp. 177-195.
- Yoder, K. A., Hoyt, D. R., & Whitbeck, L. B.(1998). Sui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6, pp. 753-771.
- Young, M. H., Moller, B., Norton, M. C., & Hill, E. F.(1995).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ive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offsp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 813-822.
- Zuckerman, M.(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 Depression of the Runaway Adolescents

Han, Sang-Ch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 depression of the runaway adolescents. According to Elder's theory of the lifespan, a person's perception on social support, escape impulsion, and depression before the runaway are continued to after runaway. This study was to verify these assump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0 students attending at a reform school. They all have an experiences that have escaped from their family. And for the comparison with the runaway group, 288 students were selec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The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social support scale, depression inventory, and runaway impulsion inventory each other. The determinant of levels have done by score to about 33% of each group. ANOVA and t-test were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mean differe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the runaway adolescents have seen lower scores of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higher runaway impulsion and depression than students attending at general schools. Second, runaway adolescents with lower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more intervention to delinquent behaviors have indicated higher scores of depression than other individu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been discussed with reduction of the risk behaviors of runaway adolescents.

* Department of Adolescent Guidance, Kyungsan University